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성격강점의 매개효과* -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

강 수 희

장 석 진[†]

상명대학교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령 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성장과정에서 긍정적 발달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외적 변인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외적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내적 변인으로 성격강점을 선정하여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3개구 지역아동센터 60여 곳의 5, 6학년 232명 아동의 자료를 수집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격강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인 성격강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격강점은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 사이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의 개인 외적 변인인 사회적 지지가 개인 내적 변인인 성격강점을 높이고, 성격강점을 매개로 하여 주관적 안녕감 향상에 기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성격강점이 환경적으로 심리 정서적 발달에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삶의 만족과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고,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발달시점에 있는 학령후기 아동에게 자신의 성격강점을 탐색하고 활용하여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적 접근과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사회적지지, 주관적 안녕감, 성격강점

* 본 연구는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수희의 석사논문(2013년 2월, 지도교수 장석진)에 바탕을 둔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장석진 /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 /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번지 / Tel: 02-2287-5497 / E-mail: schang@smu.ac.kr

서론

인간은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행복추구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에 대해서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고, 인간 존재의 목표이며 이유이다.’라고 하였고,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가 ‘삶의 목표는 행복에 있다.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복한 삶에 가장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보편적 문화현상이다(Suh, Diener, Oishi, & Triandis, 1998).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로 개인의 주관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한 마디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모호하지만, Nettle(2006)은 보편적인 행복의 특징으로 ‘객관적 조건과 구별되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며, 부정적 요소의 부재를 벗어나 긍정적 측면을 반영하는 삶의 전반적 측면의 통합적 판단’이라고 언급하였다.

행복(happiness)은 생활 만족(life satisfaction), 삶의 질(quality of life), 안녕감(well-being), 적응(adjustment)등 다양한 용어로 정의되고 있다. Diener와 Suh(1997)는 행복을 객관적이고 외적 조건에 의해서라기보다 삶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보고 개인적 측면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행복이란 용어가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측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대체하여 행복을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Diener, 1984). 이후로 학계에서는 행복이라는 일상적 용어보다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유쾌한 상태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느끼는 상태에 기초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져왔다(권석만, 2006;

Peterson, 2006). 선행연구자들은 주관적 안녕감이 스트레스와 부정적 경험을 중재하고 바람직한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정서임을 밝혔으며, 긍정정서의 경험이 한 개인으로 하여금 미래에 활용할 수 있는 지적·사회적·신체적 자신을 축적하고 확충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변화와 발전을 돕는다고 주장해왔다(허재홍, 2012; Fredrickson & Levenson, 1998; Taylor & Brown, 1988).

특히 아동에게 있어 주관적 안녕감은 긍정적인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는데, 인생의 한 시점에서 느끼는 주관적 안녕감은 학령기를 지나 청소년기로의 발달과 성장을 촉진하고 성인이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미래의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상당 부분 예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Peterson, 2006). Peterson과 Seligman(2004)도 유아기와 아동기의 긍정정서는 성격강점 계발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아동기에 주관적 안녕감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학령후기의 아동은 사춘기 발달이 시작되는 초기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중요한 발달 시점으로, 이 시기의 아동은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인 면에서 변화과정을 겪게 되어 일상생활에서 불안을 포함한 스트레스를 생애의 그 어떤 시기보다 많이 경험하게 된다(유안진, 민하영 1998). 그러나 이러한 시기를 잘 보내게 되면 높은 적응수준을 획득하여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서도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령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는 전생애 성공적 발달 및 적응과 연관성이 높으므로 발달 연속선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기의 주관적 안녕감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느끼는 아

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은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6791명을 대상으로 한 ‘2012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조사대상 23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초등학생 10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매일경제, 2012,5,4). 이러한 현실에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개입을 통해 생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긍정적 적응을 높이고, 삶의 중요한 가치 인식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고, 기존 연구조차도 대부분 일반아동에 한정되어 있다(김연화, 강문희, 2008; 이혜미, 2010; 전미경, 장재숙, 2009; 정재찬, 유형근, 2012; 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 2009; Park & Peterson, 2006).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가정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이다(심경애, 2010; 조유진, 한지숙, 2010).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저소득 빈곤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므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대부분은 빈곤가정 아동으로 취약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다(이혜경, 2007).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환경적 빈곤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빈곤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부모가 생계유지에 전념하여 자녀 양육과 교육을 지원할 시간과 정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신체적, 인지적 발달저하를 가져오고,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

트레스와 고통이 많으며 개인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어 아동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밝히고 있다(한지숙, 2011; 최선남, 전중국, 신영희, 2007; Duncan & Brook-Gunn, 2000). 또한 빈곤가정 아동의 부모들은 대부분 교육 수준 저하로 일관성 있는 훈육과 권위있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기 어렵기 때문에 정서 및 행동발달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학습부진 및 학교 부적응을 초래하게 되는데, 과잉행동과 공격적인 행동 등으로 인한 반사회적 문제행동을 야기하고(Demo & Acock, 1996), 학습부진, 학습장애로 인한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한편(고경은, 2002; 김광혁, 차유림, 2007; McLoyd, 1993), 성격형성과 자아개념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훈, 신혜중, 2008). 이렇듯,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생활환경에 존재하는 행복을 저해하는 다양한 상황들 때문에 아동복지 차원에서는 오히려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복연구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이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모든 저소득가정 아동이 문제행동과 생활 부적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자들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주변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고 성장하면 성숙되고 긍정적 자아가 형성되며, 심리 정서적 발달과 적응이 높아지고 주관적 안녕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박유미, 2010; 조유진, 한지숙, 2010; 원희정, 2006; Cohen & Wills, 1985). 사회적 지지란 타인들로부터 받는 사랑이나 인정, 정보, 물질적 원조 등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제공하여 인간의 적응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제공되는 지지이다(박지원, 1985).

즉,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자원을 통해 심리적 욕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장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심리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 안녕감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는데, 사회적 지지체계의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밝혀져왔다(박현철, 김성봉, 홍달아기, 2011; 신혜정, 2003; 이정미, 2006; 조유진, 한지숙, 2010; Cohen & Wills, 1985). 따라서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동에게 사회적 관계에서 적절한 지지와 관심을 통한 교육과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은 물론 보다 건강한 수준의 심리 정서적 발달과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복지를 논의할 때 상담과 교육을 포함한 사회적 지지와 개입이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더욱 절실히 요구되며, 이는 저소득 가정 아동을 방치하거나 외면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하고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긍정적 변인들을 통한 신속한 개입으로 장차 발생가능한 문제요소의 예방을 통해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지금까지의 아동연구가 부적응과 증상, 문제행동에 관심을 가졌다면, 최근에는 아동의 긍정적인 측면, 강점, 자원, 가치등을 어떻게 계발 활용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문용린, 원현주, 백수현, 안선영, 2008; Black, 2001; 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 긍정심리학자들은 성격강점에 대해, 가치 있는 성과를 위하여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역량이

며(Linley et al., 2007), 사고, 정서 및 행동에 반영되어 있는 인간의 긍정적 특질로 개인이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긍정적인 행동 양식과 탁월한 성품과 덕목을 의미하는 것으로(Park, Peterson & Seligman, 2004) 정의하였다. 성격강점은 그 자체로도 개인에게 가치 있을 뿐 아니라, 성격강점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강점을 최대한 발현하게 하는 교육적 의의가 크다(안선영, 2010; 임영진, 2010). Peterson과 Seligman을 포함한 긍정심리학자들은 세계의 주요 종교와 철학, 심리학 연구자료, 그리고 청소년 발달의 주요 이론을 검토하여 다양한 문화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보편적인 가치들을 성격강점으로 추출하여 6개의 핵심 덕목과 24개의 성격강점들을 선정하여 분류하였다. 성격강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격강점이 생활적응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김정주, 2010; 손보영, 2011; 원두리, 2011), 성격강점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미진, 2011; 문원정, 2009; 박혜경, 2010; Chan, 2009; Park & Peterson, 2006; Park, Peterson, & Seligman, 2004).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장면에서 성격강점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나 구체적 개입방법에 관한 연구가 현재까지는 초보 단계지만(임영진, 2010), 선행연구자들은 성격강점을 증진하는 검증된 기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대표 강점을 파악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성격강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Emmons & McCullough, 2003; Seligman, 2002; Sheldon & Lyubomirsky, 2006; Reed & Enright, 2006). 실제로 성격강점을 활용한 개입들은 여러 프로그램과 교육, 임상장면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생활 만족도, 학교적응력, 대인관계와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손봉기, 2009; 최윤정, 2009; Seligman, Rash & Park, 2006).

긍정심리학자들은 전 생애발달 중에서 특히 아동기의 성격강점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이는 성격강점의 잠재성이 이른 나이에 형성되어 인생의 특정 시기에 안정된 특질로 굳어지기 때문이다(문용린, 원현주, 백수현, 안선영, 2008; Hey et al., 1999; Park & Peterson, 2006). 더욱이 아동기의 성격강점은 노력으로 의도적 계발이 가능하고, 학습과 연습으로 습득하여 지속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초기에 중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권석만, 2008; Park & Peterson, 2008). 이러한 이유로 성격강점의 인식과 활용은 아동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고, 고유성을 인정하며, 잠재력의 발견을 통해 행복한 삶으로 연결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환경적, 심리적 변인들이 긍정적인 정서보다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성격강점에 관한 탐색은 매우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긍정적 심리 정서 발달과 주관적 안녕감에 기여하며, 성격강점 또한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이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고, 자신의 성격강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발, 활용하는 것이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데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의 성격강점에 대한 연구는 성격강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주관적 안녕감이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단편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구대상에 있어서 성인과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고 초등학생 아동의 성격강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적다. 특히, 사회 경제적 취약 계층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성격강점에 관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비록, 성격강점의 매개적 역할이 아직까지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바는 적으나, 앞서 고찰한 긍정심리학 및 성격강점 분야의 연구결과를 통해 성격강점의 매개적 역할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성격강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지지를 독립변인으로, 성격강점을 매개변인으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가정하에 성격강점의 매개효과가 검증된다면, 부모, 교사, 상담자 등 사회적 지원들의 개입을 통해 아동의 성격강점을 포함한 긍정적 성장·발달을 촉진하고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는 추후 성격강점을 활용한 상담적 개입을 모색하는 한편, 성격강점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적 접근을 통하여 아동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하여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하는 연구를 촉진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 문제 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의 성격강점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격강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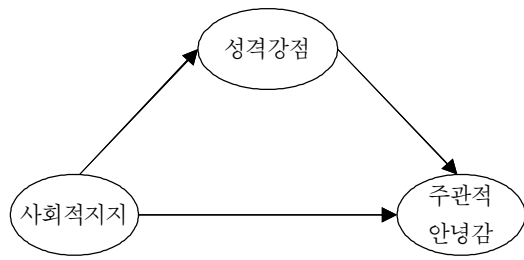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25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는 초기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중요한 발달 시점이다. Erikson(1968)의 심리사회 발달단계와 Piaget(1983)의 인지 발달단계에 따르면, 이 시기의 아동은 상징적이고 가설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체계적·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지능력 형성이 가능한 한편, 효능감, 자기감, 향상감 등에 관한 자기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Ruble, Boggiano, Feldman & Loeble, 1980; Morris & Nemcek, 1982) 성격강점이나 주관적 안녕감의 추상적 개념의 문항내용을 이해하고,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신뢰롭게 응답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료수집방법은 2012년 3월 29일부터 5월 15일 까지 서울시 소재 3개구 지역아동센터 60여 곳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와 방법 등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였다. 조사자가 직접 설문을 실시한 후 바로 회수하는 방법과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업무 진행 등을 이유로 담당 생활복지사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여 차후에 방문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조사자가 30여 곳을 직접 방

문하여 설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이 자주 질문했던 문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했던 문항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250부 중에 18부를 제외한 232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초등학교 5학년 109명(47.0%), 6학년 123명(53.0%)이었으며, 남학생은 104명(44.8%), 여학생은 128명(55.2%)이었다. 가족형태는 양부모 150명(64.7%), 한부모 70명(30.2%), 조손가정 등 기타 12명(5.1%)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한미현(1996)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지각척도와 박지원(1985)에 의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종합하여 이해경(2007)이 종합하여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역할이 아동의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사회적 지지의 4개 하위영역을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지지로 구분하였다. 각 하위영역의 친구지지는 친근감, 관심, 따돌림 등에 관한 아동의 지각을 평가하는 8문항, 가족지지는 이해, 용기, 경청,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가를 측정하는 8문항, 교사지지는 친근감, 도움, 관심, 걱정 등의 8문항,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지지는 친밀감, 존중, 관심, 믿음 등을 묻는 9문항의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친구지지 .91,

가족지지 .91, 교사지지 .86,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지지 .78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은 박병기와 홍승표(2004)가 개발하고, 박병기와 송정화(2007)가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Diener와 동료들(1984, 1997), 그리고 Ryff(1989), Ryff와 Keyes(1995)의 이론과 경험적 연구들을 참고하여 개발된 척도로 이소현(2009)이 수정, 축소,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도구의 6개 하위요인(정적 효능안녕, 정적 정서안녕, 정적 관계안녕, 부정적 효능안녕, 부정적 정서안녕, 부정적 관계안녕) 중 정적 방향을 갖는 정적 효능안녕, 정적 정서안녕을 측정하는 7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정적 관계안녕 문항의 경우 사회적 지지척도와 측정이 중복되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적 효능안녕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를, 정적 정서안녕은 정서를 긍정적으로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박병기, 홍승표, 2004). 원 척도는 6점 Likert 척도였으나 아동이 반응하는데 복잡성을 줄이고 명료한 응답을 얻기 위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효능안녕 .86, 정서안녕 .86으로 나타났다.

성격강점

아동의 성격강점을 측정하기 위하여 Seligman이 개발한 VIA Strength Survey Children 척도의 성격강점 24개 하위요인 198개 문항 중에서 가장 변별력이 큰 48개 문항으로 김인자(2006)가 축약 번역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격강점과 덕목의 분류체

계(Values in Action: VIA)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혜와 지식은 인지적 강점(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통찰), 용기는 내적·외적 반대에 직면하여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의지를 포함한 정서적 강점(용감함, 끈기, 진실성, 활력), 인간애는 타인을 돌보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을 포함한 대인간 강점(사랑, 친절, 사회성), 정의는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이루는 시민정신과 관련된 강점(시민의식, 공정함, 리더십), 절제는 무절제를 막는 강점(용서, 겸손, 신중함, 자기조절), 초월성은 보다 큰 우주와 점진적으로 연결되며 의미를 부여하는 강점(감상력, 감사, 희망, 유머, 영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권석만, 2008; 문용린 외 2009). 김인자(2006)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대상의 성격강점 척도의 원본을 사용하여 측정하기에는 문항수가 많아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단축형 48문항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검사는 8~17세 아동·청소년에게 시행할 수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약간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격강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강점 척도를 세 개의 문항꾸러미로 나누었으며,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성격강점 1은 .78, 성격강점 2는 .78, 성격강점 3은 .77이었으며,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문항꾸러미 제작

하나의 구성개념은 3개에서 5개 정도로 측정변수 구성을 권장하는데, 성격강점은 6개의 하위구성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4개의 측정 변수가 반영되어 있어, 각 하위 구성개념으로 측정 변수를 모두 고려한다면 이러한 권장기준을 초과한다. 측정변수가 많아지는 것은 구조방정식 목적에 어

곳나고, 모형의 간명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설명량 추구를 기본 전제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므로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였다(최영희, 2010). 이론적·경험적으로 24개의 성격강점은 6개의 미덕으로 분류된다(Macdonald, Bore, & Munro, 2008, 임영진, 2010 재인용).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6개의 미덕과 24개의 성격강점 하위요인의 속성을 찾는 데 있는것이 아니라, 아동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성격강점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문항꾸러미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문항꾸러미를 제작하는 방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잠재변인을 단일요인으로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문항들을 요인부하량에 따라 순서를 정한다. Russel & Routh(1998)는 모든 꾸러미들이 잠재변인에 대해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하여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꾸러미가 해당 잠재변인을 같은 수준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에 의해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은 문항에서 가장 낮은 문항을 정렬시키고, 높은 점수의 요인부하량과 낮은 점수의 요인부하량을 차례로 묶는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강점 잠재변수를 총 3개의 꾸러미로 구성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에서 큰 차이가 없고, 각각의 문항꾸러미 왜도가 2 이상이거나 첨도가 7 이상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 측정변수 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을 활용하여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 확인을 통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는지 알아보았고,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통해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고,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성격강점이 매개하는 연구

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 AMOS 20.0을 사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적용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시행하였다. 검증 과정에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χ^2 검증은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하여 모형이 조금만 틀려도 쉽게 기각되며, 연구자의 관심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표본 크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한계가 있어(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홍세희, 2000 재인용)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절대적 적합도 지수 RMSEA(Root Mean Squar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표준오차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절차에 따라 간접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기술통계

본 연구를 위한 기초 분석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일반적 경향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고, 왜도와 첨도를 살펴봄으로써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살펴보았다. 경로모형에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으면 다변량 정상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하였는데(Curran, West, & Finch, 1996), 분석결과 모든 변인들의 왜도가 2이하, 첨도에 있어서도 모든 변수가 7이하를 나타내고 있어 정규분포가 가정되었다. 각 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은 각각 비슷한 수준의 평균을

보였으나, 그 중 가족 지지(M=3.23)가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고 생활복지사지지(M=3.17), 친구지지(M=3.04), 교사지지(M=3.02) 순으로 나타났는데, 연구대상자인 초등학생 아동에게 가족은 심리,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가장 중요한 지지원임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정서안녕(M=3.23), 효능안녕(M=2.90)은 각각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격강점의 하위 변수인 문항꾸러미 간 평균과 표준편차에서 큰 차이는 없었고, 왜도가 2이상이거나 엄격한 기준에서 4이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

감, 성격강점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지지는 성격강점($r = .667, p < .01$)과 높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주관적 안녕감($r = .638, p < .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성격강점과 주관적 안녕감($r = .698, p < .01$)도 높은 수준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과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생활복지사 지지는 효능안녕, 정서안녕과의 관계에서 $p < .01$ 수준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중 생활복지사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 중 효능

표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667**	2										
3	.638**	.698**	3									
4	.739**	.480**	.462**	4								
5	.786**	.567**	.613**	.476**	5							
6	.746**	.534**	.445**	.419**	.525**	6						
7	.666**	.385**	.358**	.283**	.320**	.293**	7					
8	.708**	.907**	.638**	.529**	.603**	.529**	.423**	8				
9	.677**	.908**	.716**	.496**	.614**	.544**	.347**	.812**	9			
10	.632**	.907**	.701**	.482**	.534**	.483**	.362**	.816**	.811**	10		
11	.483**	.579**	.889**	.306**	.501**	.402**	.222**	.543**	.624**	.578**	11	
12	.627**	.621**	.817**	.509**	.557**	.355**	.415**	.639**	.599**	.629**	.462**	12
M	3.11	3.04	2.72	3.23	3.04	3.02	3.17	2.90	3.23	2.72	2.84	2.89
SD	.49	.58	.35	.67	.67	.63	.74	.67	.71	.47	.46	.47
왜도	-.28	-.37	-.43	-.66	-.52	-.21	-.43	-.30	-.79	-.44	-.40	-.40
첨도	-.38	.01	.61	-.24	.08	-.68	-.28	.06	.35	.15	.28	.22

주) 1. 사회적지지, 2. 성격강점, 3. 주관적 안녕감, 4. 가족지지, 5. 친구지지, 6. 교사지지, 7. 생활복지사지지, 8. 성격강점1, 9. 성격강점2, 10. 성격강점3, 11. 효능안녕, 12. 정서안녕

* $p < .05$, ** $p < .01$

안녕($r = .222, p < .01$)은 가장 낮은 상관을 보였다. 성격강점 하위요인과 주관적 안녕감 하위요인과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효능안녕, 정서안녕이 성격강점 문항꾸러미 1부터 3까지 모두 $p < .01$ 수준으로 유의한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성격강점을 높게 인식할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과 성격강점 하위요인과의 상관을 살펴보면, 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생활복지사 지지가 성격강점 문항꾸러미 1부터 3까지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친구지지가 성격강점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아동 후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시기가 가족에서 학교나 또래 친구들로 관계가 확대되어 가면서 영향력이 변화하는 발달적 시점과 일치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측정변인간 상관의 상대적으로 높아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변인의 합을 토대로 공차한계값(Tolerance)과 분산팽창지수(VIF)값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값은 .60 이상으로 기준이 되는 .10보다 훨씬 크며, VIF 값은 10보다 매우 작은 1과 2 사이의 범위에 분포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학식, 임지훈 2010).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구성개념과 잠재 변인이 측정변인에 의해 적절히 구인되는지 확인하고, 구조모형의 전체 적합도 및 간접경로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FI, TLI, NFI, RMSEA를 함께 살펴보았다. 측정모형의 검증에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하였다. 유의수준 0.001 수준에서 χ^2 의 값은 55.807이었으며, 자유도는 24이었다. 모형 적합도는 각각 CFI = .97, TLI = .96, NFI = .95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CFI, TLI, NFI는 모형 적합도 판정 권장기준이 모두 0.9이상이며, RMSEA는 0.05~0.08의 범위에서 수용한다. 본 연구모형에서는 RMSEA값이 .076으로 적합도 판정 권장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고, CFI, TLI, NFI 값 또한 권장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모형의 수용에는 무리가 없다(Hair et al. 1995). RMSEA는 절대적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ex)로 이론모형이 자료와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데, Browne과 Cudeck(1993)에 의하면 RMSEA < .05이면 좋은 적합도, RMSEA <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RMSEA < .10이면 보통 적합도 RMSEA > .10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괜찮은 적합도(RMSEA = .076)를 보여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적합도 평가 결과를 그림 2와 표 2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성격강점의 매개효과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에 성격강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을 검증하고,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완전매개모형을 분석하여 두 모형간 χ^2 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연구모형의 χ^2 검정 결과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적합도 지수 또한 CFI=.973, TLI=.960, RMSEA는 .076으로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하였다.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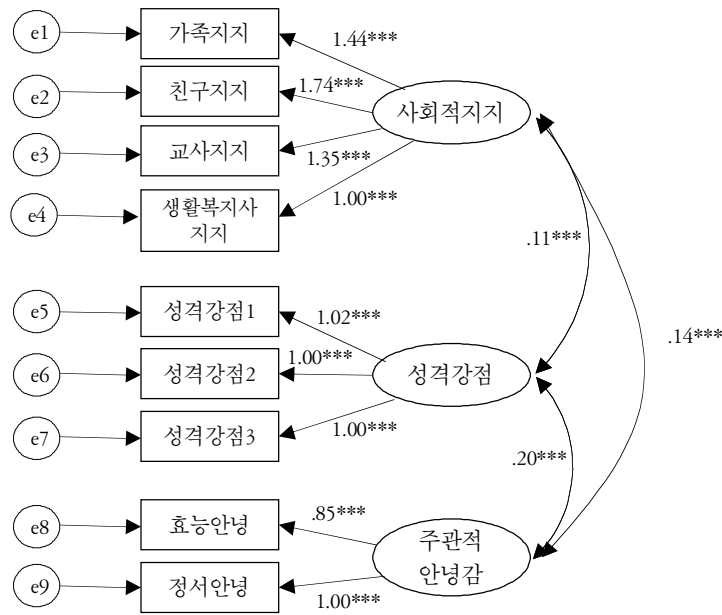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df	CFI	TLI	NFI	RMSEA
측정모형	55.807***	24	.937	.960	.954	.076

*** $p < .001$

표 3.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χ^2	df	CFI	TLI	NFI	RMSEA
연구모형(부분매개)	55.807	24	.973	.960	.957	.076
경쟁모형(완전매개)	63.531	25	.967	.953	.948	.082

살펴보면, CFI=.967, TLI=.953, RMSEA는 .82로 경쟁모형 또한 우수하다. 그러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 검증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χ^2 의 차이 값이 7.724로 $df = 1(p < .01)$ 을 기준으로 6.63보다 크기 때문에 두 모델 간에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또한 부분매개 모형

과 완전매개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경쟁모형 보다 더 나은 적합도를 보였기 때문에 두 모형 간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고 부분매개모형을 채택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인 부분매개 모형을 채택했으며, 연구모형인 부분매개 모형

과 대안모형인 완전매개 모형을 그림 3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 성격강점의 변인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성격강점이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한 결과 부분매

개 모형과 완전매개 모형의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표 4의 부분매개 모형의 검증 결과, 부분매개 모형의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성격강점이 높아지며($\beta = .862, p < .001$),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주관적 안녕감($\beta = .473, p < .001$)이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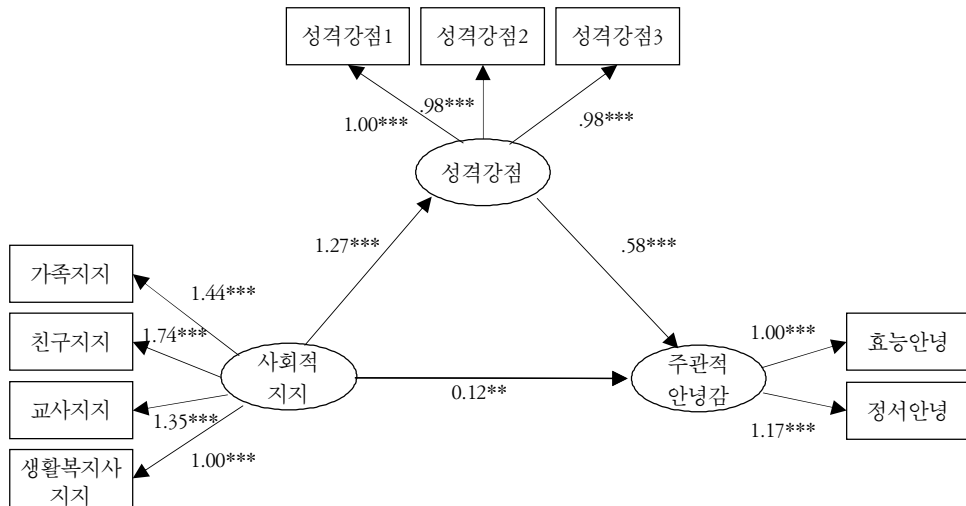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부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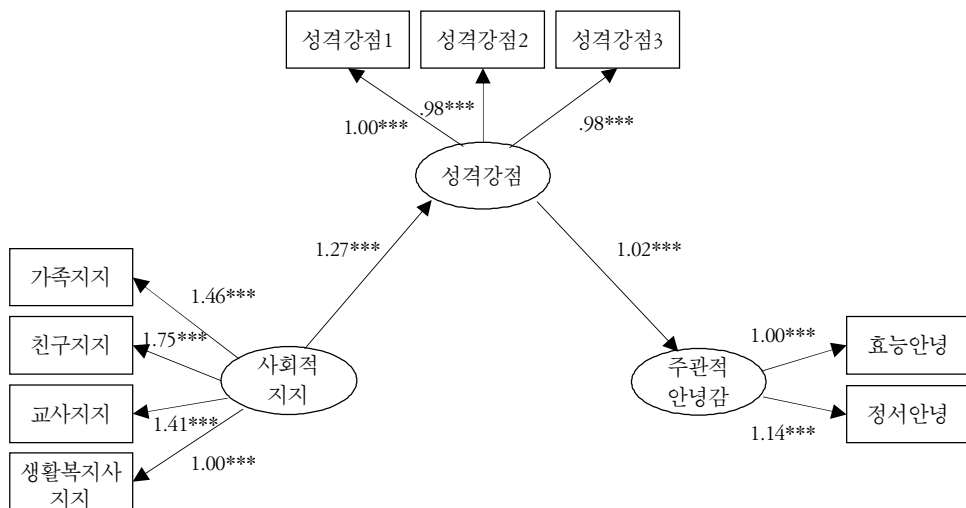


그림 4. 경쟁모형(완전매개모형)

표 4. 부분매개 모형의 경로계수

구조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사회적지지 → 성격강점	1.225	.862***	.213	5.741
성격강점 → 주관적안녕감	.578	.571***	.169	3.414
사회적지지 → 주관적안녕감	.681	.473*	.273	2.497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완전매개 모형의 경로계수

구조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사회적지지 → 성격강점	1.268	.878***	.224	5.649
성격강점 → 주관적안녕감	1.021	.994***	.088	11.562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격강점이 높아 질수록 주관적 안녕감($\beta = .571, p < .001$)이 증가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성격강점을 높여주고, 동시에 주관적 안녕감 증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표 5의 완전매개 모형의 검증결과, 완전매개 모형의 사회적 지지에서 성격강점, 성격강점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p < .00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였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성격강점이 높아지며($\beta = .878, p < .001$), 성격강점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안녕감($\beta = .994, p < .001$)

이 증가한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성격강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검증법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는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표준오차를 사용하는 Z 검증(Soble 검증)을 실시할 경우 부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서영석, 2010),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간접효과의 표준오차에 대한 정확한 추정치를 계산 하는 방법인 부

표 6. 측정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구조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95%신뢰구간	
				Bootstrap percentile	
				하한	상한
사회적지지 → 성격강점	.84**	-	.84		
성격강점 → 주관적안녕감	.61**	-	.61		
사회적지지 → 주관적안녕감	.43	.52	.95	.09	.85

** $p < .01$

트스트랩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 검증법은 통계적 추정치의 유의도를 결정함에 있어 경험적 방법을 제공하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검증에 원자료(N = 232)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1000개의 경험적 표본이 모수추정에 사용되었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얻어진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이 .09-.85로 상한과 하한 범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격강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성격강점을 통한 간접효과도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의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논 의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학령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외적 변인들의 관련성을 탐색함으로써,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관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실천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동의 환경적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개인내적 변인으로 성격강점을 선정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여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성격강점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구조적인 과정을 확인하였으며, 직접, 간접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 성격강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들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는 성격강점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의 각 하위 변인들도 성격강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친밀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된다는 선행 연구자들(Cacioppo, Gardner, & Berntson, 1999)의 견해와 일치하는 부분으로, 저소득층 아동이 주변의 의미있는 사람들로 부터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제공받고, 지각한다면 심리적 자원인 성격강점을 발견하고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부모, 교사, 상담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에서는 성격강점의 인식과 활용이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통해서 발견되고 강화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어(김경미, 이영순 2011; 이영구, 2012; 정혜영, 이경화, 2008; 최은주, 고승민, 황은혜, 2009), 사회적 지지가 성격강점에 중요한 변수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일반아동을 포함한 저소득 가정 아동의 성격강점을 높혀 주고 이를 통해 아동 자신의 다양한 장점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환경적 요인으로 부정정서의 경험에서 비롯된 비행, 범죄 등의 사회문제를 우선시했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긍정 정서인 사회적 지지와 성격강점의 활용을 통한 개입으로 성공적 발달과 적응, 풍요로운 삶,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환경적 빈곤에 인한 위험요인의 사회문제 유발을 예방하여 국가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과도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가족, 또래, 교사, 지

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짐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는 사회적 지지원이 자기 효능감과 생활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주장한 연구결과(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이정미, 2006, Cohen & Syme, 1985)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신혜정, 2003; 최우경, 김진숙, 2012; Cohen & Wills, 1985)에서 입증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긍정심리학자인 Seligman(2002)은 행복한 사람은 사회적 자원이 풍부하며, 행복의 조건으로 다른 사람과 더 잘 어울리기를 주장하였다. 현실 치료자 Wubbolding(1990) 역시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가 행복의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아동은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을수록 심리적 적응 및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며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성격강점 역시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성격강점을 높게 인식하면 주관적 안녕감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강점과 행복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선행연구(김미진, 2011; 박혜경, 2010; 신현숙, 2011; 임국환, 2013; 임영진, 2010; 최은미, 2009; Park, Peterson & Seligman, 2004)와 강점 계발을 활용하여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하고자 했던 연구결과(최윤정, 2009; Seligman, 2006)와 일치한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성격강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유의하였고,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정한 모형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이는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연구

들(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Cohen & Wills, 1995), 성격강점의 인식과 활용이 주관적 안녕감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선행연구(국진희, 2012; 임영진, 2010; 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격강점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는 것은, 아동이 부모, 교사, 또래 등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원들로부터 받는 긍정적 지지가 성격강점을 높이고 다시 주관적 안녕감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에게 사회적 지지는 긍정적 삶의 지각으로 자신의 성격강점을 인지하고 높이는데 기여하며, 성격강점의 발달이 아동기와 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 변인으로 작용하여 주관적 안녕감의 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상담 심리학계의 연구방향은 행복이나 강점과 같이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 조명하면서 인간이 가진 긍정적 에너지를 계발하는데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Seligman, 2002). 특히 성격강점을 상담 및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들이 시도되고 있는데(김혜민, 2012; 손봉기, 2009; 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 이러한 접근은 삶의 만족 및 행복도 상승, 우울감 감소, 정적 대인관계 증진 등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격강점을 계발하고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 개입방법에 관한 연구는 현재 미흡한 실정이나, 성격강점을 활용한 집단상담(이현주, 유근형, 조용선, 2011), 성격강점 수첩활용(손봉기, 2009), 성격강점 검사를 통한 자신의 대표강점 인식 및 활용하기(Seligman, Steen, Peterson, & Park, 2005)의 긍정적 효과성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구체적 활용방안 초점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

어져 있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격강점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성격의 형성은 생의 초기에 부모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며 의미있는 타인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 가능하다(Sullivan, 1953). 따라서, 아동기에 초점을 두어 성격강점의 잠재성을 발견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아동대상의 성격강점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사회 경제적 요인이 열악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이 제한적인 경우가 대부분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성격강점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오히려 취약한 생활환경으로 행복감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내재된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성격강점들을 탐색하고 이를 발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돕는다면, 이들의 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높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복감 증진에 기여할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를 통해 자신의 성격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 결과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한 삶을 돕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내부적인 힘을 키우는데 기여할 것이다. 더 나아가 아동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부모, 교사, 상담자가 성격강점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역할 개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행복감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 적절한 상담적 개입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는 한편, 긍정심리학으로 대표되는 성격강점을 매개변인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확인하는데 의의가 있다. 인간의 성장과 강점에 기반을 두는 긍정심리학의 발달로 부정적 측면과 장애의 제거에 초점을 두었던 전통적 질병모델에

서 긍정적 측면의 성격강점 개발을 통해 정신 장애를 완화하고 개인이 성장과 행복을 지원하는 성장모델 근거의 접근은 주관적 안녕감의 본질적 성장 목표와 부합된다(이현주, 유형근, 조용선, 2011). 또한 아동의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들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지를 받게 되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성격강점을 높게 지각하게 되어 주관적 안녕감 향상에 기여한다. 따라서 학교 및 상담 현장,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성격강점 상담프로그램 진행, 성격강점 검사를 통한 자신의 대표강점 인식과 활용방안 모색, 성격강점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아동이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천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단위의 표본을 사용하지 못하고 서울의 3개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 대한 표집으로 일반화 범위를 넓히고 인구사회학적 변수 등을 고려하여 연령 및 집단별로 규명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자기편향에 의한 영향을 간과하기 어렵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면접, 행동관찰, 부모 및 교사에 의한 평정척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객관적 측정치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아동의 성격강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타 문화권에서 제작되고 타당화된 것으로, 한국 아동들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성격강점 척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성격 강점 목록을 서로 다른 문화권에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인식 차이로 인한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에 주의해야 한다. 넷째, 최근에 성격강점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청소년·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아동기부터 자신의 성격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축적 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성격강점을 계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구체적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주관적 안녕감과 성격강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제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개인 심리 내적 성격강점이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적 지지와 성격강점을 활용하여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고, 아동대상 교육 및 상담적 개입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권석만 (2006).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고경은 (2002).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학교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국진희 (2012). 중·고등학생의 학교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격강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경미, 이영순 (2011). 감사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2(6), 2029-2046.
- 김광혁, 차유림 (2007). 가구빈곤이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분석: 부모의 교육적 관여(투자)와 부모-자녀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8(1), 29-51.
- 김미진 (2011). 성격강점과 행복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김정주 (2010). 청소년의 성격적 강점과 학교생활 적응도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김연화, 강문희 (2008). 아동의 성격유형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행복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9(6), 35-54.
- 김혜민 (2012). 성격강점 활용이 정서노동자의 주관적 안녕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문용린, 원현주, 백수현, 안선영 (2008). 부모가 지각한 아동의 성격강점 및 덕목 분석. 인간발달연구, 15(4), 17-35.
- 문원정 (2009). 대학생의 성격적 강점이 학업 성취도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민병기 (1999). 초등학생의 생활만족도 형성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5(1), 57-76.
- 박유미 (2010). 저소득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박병기, 송정화 (2007). 주관적 안녕의 2x3 다차원 요인구조. 교육심리연구, 21(3), 591-611.
- 박병기, 홍승표 (2004). 주관적 안녕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18(3), 159-175.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박혜경 (2010). 일반계 고등학생의 성격적 강점이 학업성취도와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박현철, 김성봉, 홍달아기 (2011).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3), 167-193.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22(4), 1147-1168.
- 손보영 (2011). 초등학교의 성격 강점 발달이 학업 성적 및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손봉기 (2009). 성격강점이 군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신현숙 (2011). 초등학교의 성격적 강점 및 주관적 안녕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신혜정 (2003).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안녕감과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 심경애 (2010).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 조사를 통한 긍정심리치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안선영 (2010). 성격강점에 대한 청소년의 자기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유안진, 민하영 (1998).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아동학회지*, 19(2), 77-96.
- 원두리 (2011). 성격 강점이 청소년의 안녕감과 적응적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1), 151-167.
- 원희정 (2006).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소현 (2009).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아동의 사교육 경험, 스트레스 및 주관적 안녕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영구 (2012).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 리더십 생활 기술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매개 효과: 스카우트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 이정미 (2006). 아동이 지각한 부모 간의 갈등, 어머니의 양육행동, 사회적지지 및 안녕감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이학식, 임지훈 (2011). SPSS 18.0 매뉴얼. 서울: 집현재.
- 이혜경 (2007).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지지 및 임파워먼트와 심리사회적 적응.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혜미 (2010). 초등학교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NLP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 검증.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이현주, 유형근, 조용선 (2011). 초등학교의 주관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강점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12(2), 467-488.
- 이훈, 신혜중 (2008).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홍성군 아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4(1), 167-193.
- 임국환 (2013). 대학생의 성격적 강점과 행복지수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임영진 (2010). 성격 강점과 긍정 심리치료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전미경, 장재숙 (2009).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3), 103-118.
- 정재찬, 유형근 (2012). 초등학교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아동교육*, 21(2), 41-57.
- 정혜영, 이경화 (2008). 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지지, 자기조절력, 주관적 안녕의 인과적 구조 분석. *아동학회지*, 29(4), 167-179.
- 조성연, 신혜영, 최미숙, 최혜영 (2009). 한국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 실태조사. *아동학회지*, 30(2), 129-144.

- 조유진, 한지숙 (2010).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행복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4(4), 541-562.
- 최선남, 전종국, 신영희 (2007).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적 불안감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연구. *상담학연구*, 8(3), 1101-1119.
- 최영희 (2010).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분노표현양식의 매개효과: 공감능력에 따른 추가적 탐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최우경, 김진숙 (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의 조절 효과와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1), 255-272.
- 최윤정 (2009). 유아교사의 행복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 Seligman의 강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최은미 (2009). 성격적 강점이 성인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최은주, 고승민, 황은혜 (2009).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한부모동거가족 아동의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시 동구지역 초등학교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문연구지(동광)*, 105, 217-279.
- 한지숙 (2011).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 탐색.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18(3), 1-18.
- 허재홍 (2012). 긍정정서가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과 강원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학 연구*, 13(1), 31-46.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lack, B. (2001). The road to recovery. *Gallup Management Journal*, 1(4), 10-12.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154, 136-136.
- Cacioppo, J. T., Gardner, W. L., & Berntson, G. G. (1999). The affect system has parallel and integrative processing components: Form follows fun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839-855.
- Chan, D. W. (2009). The hierarchy of strengths: Their relationships with subjective well-being among Chinese teachers in Hong Kong. *Teacher and Teacher Education*, 25, 867-875.
- Cohen, S., & Syme, L. S. (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 Academic Press.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01-357.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 16-29.
- Demo, D. H., & Acock, A. C. (1996). Family structure, family process, and adolescent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6(4), 457-488.
- Din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nner, E., & Suh, E. N.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Psychology*, 69(1), 130-141.
- Duncan, G. J., & Brooks-Gunn, J. (2000). Family poverty, Welfare Reform and chil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1), 188-196.
- Emmons, R. A., & McCullough, M. E. (2003).

- Counting blessings versus burdens: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ail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377-389.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redrickson, B., & Levenson, R. (1998). Positive emotions speed recovery from the cardiovascular sequelae of negative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12(2), 191-220.
- Hair J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William, C. Black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 4.
- Hey, J., Wang, R. L., Lukens, L., & Doebly, J. (1999). The limits of selection during maize domestication. *Nature*, 398, 236-239.
- Linley, A., Maltby, P., Wood, J., Joseph, A. M., Harrington, S., Peterson, S., Park, C., & Seligman, M. E. (2007). Character strengths in the United Kingdom. *The VIA Inventory of Strength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341-351.
- Macdonald, C., Bore, M., & Munor, D. (2008). Values in action scale and the Big 5: An empirical of structur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4), 787-799.
- McLoyd, V. C. (1993).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311-326.
- Morris, W. N., & Nemcek, D. Jr. (1982).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arison motivation among preschoolers: Evidence of a stepwise progression. *Merrill-Palmer Quarterly of Behavior and Development*, 28, 413-425.
- Nettle, D. (2006). 행복의 심리학 [*Happiness: The Science Behind Your Smile*]. (김상우 역). 서울: 와이즈북(원전은 2005년에 출판).
- Park, N. S., & Peterson, C. (2006). Character strengths and happiness among young children: content analysis of parental descriptio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 323-341.
- Park, N. S.,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 603-619.
- Park, N. S., & Peterson, C. (2008). Positive Psychology and Character Strengths: Application to Strengths-Based School Counseling. *ASCA: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12, 85-92.
- Peterson, C. (2006). *A Primer in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9). 긍정심리학의 입장에서 본 성격 강점과 덕목의 분류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문용린, 김인자, 원현주, 백수현, 안선영 역).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원전은 2004년에 출판).
- Peterson, C., Ruch, W., Beermann, U. Park, N. S., & Seligman, M. E. P. (2007). Dedicated to furthering research and promoting good practic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2(3), 149-156.
- Reed, G. L., & Enright, R. D. (2006). The effects of forgiveness therapy on depression, anxiety, and posttraumatic stress for women after spousal emotional abus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 920-929.
- Routh, A. F., & Russel, W. B. (1998). Horizontal drying fronts during solvent evaporation from

- latex films. *Albe Journal*, 44(9), 2088-2098.
- Ruble, DM N., Boggiano, A. K., Feldman, N. S., & Loebel, J. H. (1980). Developmental analyses of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in self-evalu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6, 105-115.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19.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 Seligman, M. E. P. (2006). 긍정심리학: 진정한 행복 만들기 [*Authentic happiness*]. (김인자 역). 경기: 물푸레.(원전은 2004년에 출판)
- Seligman, M. E. P., Steen, T. A., Park, N., & Peterson, C. (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 *American Psychologist*, 60(5), 410-421.
- Seligman, M. E. P., Rash, T., & Park, A. C. (2006). Positive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61, 774-788.
- Sheldon, K. M., & Lyubomirsky, S. (2006). How to increase and sustain positive emotion: The effects of expressing gratitude and visualizing best possible selves.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 73-82.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e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 Suh, E. M., Diener, E., Oishi, S., & Triandis, H. C. (1998). The Shifting Basis of Life Satisfaction Judgements Across Cultures: Emotions versus Nor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2), 482-493.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Wubbolding, R. E. (1990). *Understanding reality therapy*. Haper Collins Publishers.
- 원고 접수일 : 2013. 06. 15.
수정원고 접수일 : 2013. 08. 10.
게재 결정일 : 2013. 08. 13.

**The Mediating Effect of Character Strength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s and Subjective Well-being:
Focused on Community Child Centers**

Kang, Su-Hee

Chang, Seok-Jin

Sangmyung University

This present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character strength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children of community child center. The questionnaires designed to measure social supports, subjective well-being, character strengths were administered to 232 low-income family children of 60 local child centers.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data indicated that the hypothesized structural model produced a good fit to the data. Also, the link between social supports and subjective well-being partially mediated by character strengths of children. Th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character strengths, social supports, subjective well-being